

양파(*Allium cepa* L.) 멀칭재배시 질소비료 추비방법이 생육, 수량 및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김우일*, 서전규, 김희대, 김병수¹, 이문중,
경상남도농촌진흥원, ¹경북대학교 원예학과

양파의 멀칭재배에서 효율적인 질소질 추비방법을 구명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녕대고 품종을 공시하여, 농가 관행인 고행비료 5회 추비를 대조구로 하여 고행비료, 완효성비료, 액비형태의 추비방법으로 시기를 달리하는 9가지 처리를 하여 생육, 특성, 수량 및 수확후의 저장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결과 고행비료의 전량기비와 완효성비료의 시험제품 2호 및 3호는 시비노력을 절감시키고 수확후의 저장성은 좋았으나, 4월 초순부터 비료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육 및 수량이 추비를 실시한 처리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추비를 실시한 처리에서는 고행비료에 비해 액비관주의 방법에서 생육, 수량 및 저장성이 좋았으며, 특히 시비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고, 추비 시기는 빨리 할수록 수확 시의 수량도 많고, 수확 후의 저장성도 좋았다.

그러므로 양파의 멀칭 재배 시 추비 방법은 액비관주로, 추비 시기는 생육재생기인 2월과 3월에 걸쳐 한달 간격으로 2회 시용 하는 것이 저장성 향상과 시비노력의 절감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